

교수학습개발센터 세미나

학생들과의 소통

2012. 9. 26.

전자전기공학부

박재형

- **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**
 - 학생들에게 대학이란?
 - 학생들에게 교수님이란?
 - 좋은 강의? 나쁜 강의?
- **소통을 위한 Key Word**
- **강의 진행 방식**
 - 학기 준비, 학기 시작, 수업의 진행, 과제와 시험, office hour

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 (학생들이 바라는 대학?)



- 취업을 위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고 경쟁하는 곳
-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 (취업이 아니면 필요 없는 곳)
- 진로를 결정하는 곳
-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발판
- 사회생활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 (졸업장, 스펙 쌓기)
- 취업센터?

다수의 학생, 고학년
자신감 결여, 피곤함

-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곳,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
-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와 경험을 제공해 주는 곳
- 앞으로 필요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곳
- 인생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

저학년
자유로움, 즐거움

- 학문의 본질을 탐구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곳
- 창의적 역량, 지식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곳
- 인성교육이 더 필요한 곳
-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는 곳
- 스스로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학적 능력을 키우는 곳
(4학년이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...)

소수의 학생
현실과의 괴리

- 전공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기 쉽게 전달해 주는 사람
-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
- 진로에 대해 고민을 상담해 주고 가이드 해주는 사람
- 같은 분야를 먼저 경험한 사회의 선배
- 학생의 진로와 고민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, 격려하고, 다양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멘토

- 다가가고 싶지만 어렵고 불편한 사람
- 높은 벽이 느껴지는 사람
- 보통사람과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
-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
- 항상 바쁜 사람
- 따라갈 수 없는 스펙을 가지고 학문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
- 권위적인 사람
- 지식만을 전달하는 다소 형식적인 학교 선생님 (학생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)

나쁜 강의

- 열정이 없는 강의
- 학생의 반응과 상관없이 혼자 수업만 하는 강의 ('소통' 없는 강의)
- 책 읽듯 수업하는 강의, 졸리는 강의
-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강의 (좌절을 주는 강의)
- 수업내용에 비해 시험이 너무 어려운 강의
- 필기위주의 강의, ppt 위주의 강의,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하는 강의
- 진도 위주의 강의
- 자주 휴강하는 강의

좋은 강의, 바라는 점

- 열정이 넘치는 강의
- '소통' 하는 강의
- 천재보다 바보가 하는 강의 (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눈높이로 하는 강의)
- 해당 교과목과 관련 전공분야에 흥미를 갖게 하는 강의
- 공부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강의 (학생들의 진로 분야와 연관성, 교과목의 목적 등)
- 문제풀이, 실습 등 실제 응용 능력을 키워주는 강의
- 기업에서의 활용 분야와 연관된 부연 설명 등 이론 외적으로 전공 이해에 도움이 되는 강의
- 취업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, 체험 경험 제공
- 페이스북, 트위터, 이메일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 채널

● 고객

- 교수에게 학생은?
- 학생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, 어린이?
- 빈틈을 보이면 공격하는 적?
-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제자?

● 눈높이

- 강의가 끝난 후에 학생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?
-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?
- 내가 제대로 아는 것만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?
-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판단해서 전달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?
- 너무 욕심이 과하진 않은가?

● 관심, 친밀감

- 학생의 진로와 고민에 대해 깊이,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?
- 형식적으로 관심 있는 척 하고 있지 않은가?
-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?

● 신뢰

- 학생을 믿고 있는가?
- 학생을 대하고 지도하는 원칙이 있는가?
- 그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는가?

● 격려, 자극

- 학생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?
- 어떻게 학생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인가?
- 지속적으로 학생의 동기 부여를 위해 어떤 자극을 주고 있는가?

● 열정

- 강의하고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가?
- 연구 과제 발표할 때 만큼 강의에도 열정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가?

강의의 진행

● 강의 교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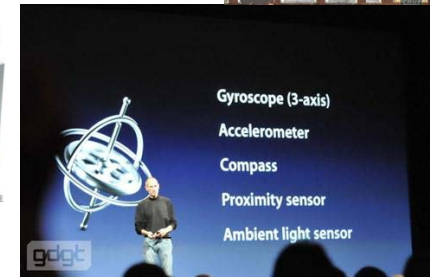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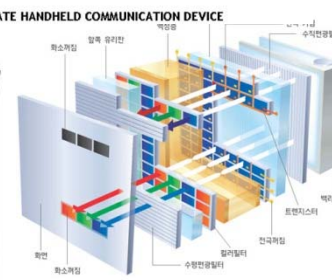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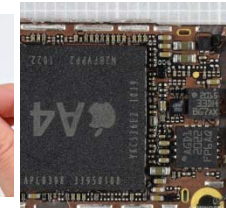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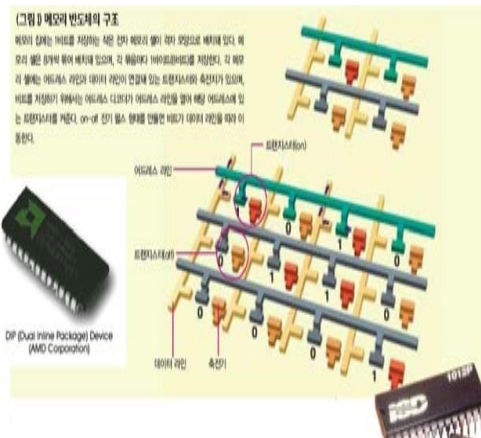
- 반도체 관련 전공 교과목
- 강의 대상: 2학년, 3학년, 4학년

● 학기의 준비

- 수강 신청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통해 선수 교과목의 성적 수준 파악
- 강의자료 (ppt) 작성, 수정, 보완

● 수업 첫 시간

- 강의 전반에 대한 소개
- 본 교과목의 내용이 실제 적용되는 흥미 있는 응용 분야의 소개



● 강의 첫 주

- 본 교과목에 대한 선수 과목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에 대한 복습
- 복습 과정에서 질문을 통하여 선수 과목의 이해 정도와 학생들의 수준 파악

● 수업의 진행

- 수업 시작 전 조금 일찍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
- 출석 확인 시 얼굴과 이름을 외우기 위해 노력
- 일주일 단위로 강의노트를 이러닝 캠퍼스에 업로드
- 강의노트는 ppt 파일을 이용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구성
- 강의노트와 더불어 많은 내용은 칠판 판서를 동시에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

● 과제와 시험

-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과제나 시험
- 스스로 공부하면서 시험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과제 위주
- 4학년 교과목의 경우, 배우는 교과목과 연관된 실제 응용 사례(최신 기술)에 대한 보고서 작성 (특허, 논문 등의 검색을 통한)

● Office hour

- 별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 후 찾아올 수 있도록 독려함

●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수업 외적 내용

-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
- 교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취업 면접에서 잘 언급되는 부분에 대한 예시
- 중간/기말 시험 전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의만 하는 시간 부여
- 실제 회사에서 하는 일, 전자신문 등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 등을 소개
- 고학년의 경우 논문 검색, 특허 검색 방법 지도
이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과제
- 자신감을 고취하는 격려와 자극

●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내용

- 이름을 지목하여 질문하기
- 질문하는 학생들에 대한 가점 부여
- 성적 반영을 전제로 한 잦은 Quiz

- “재미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혼자만 신나서 혼자 웃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가끔 웃었습니다.”
(강의 평가 설문 중에...)
- “교수님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춤추고 노래 부르실 줄은 몰랐어요. 원래 놀기도 잘 하세요?”
(학과 MT 를 같이 다녀온 학생들이...)
- “교수님 저음의 목소리에 사투리가 좀 졸리게 해요. 그런데 왠지 친근하게 들려요. 가끔 영어도 사투리로 들려요.”
(상담 중에 강의 단점을 이야기 해보라고 했더니...)
- “교수님은 잘 웃으셔서 좀 덜 무서워요.”
(다른 강의 수강 학생이 질문을 하러 와서 왜 나한테 왔냐고 했더니...)
- “교수님도 학생 때 그런 고민 하셨어요? 지금도 미래에 대한 고민 있으세요?”
(상담 중에 비슷한 고민을 나도 했었다고 하자...)

**조금만 노력해도 학생들에게
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**

감사합니다.